‘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실버프로그램 해설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즐거움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 자연환경안내원 000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하루를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실 000입니다.
국립공원소개	국립공원이란?	경주에 살고 계시면서도 우리 고장에 국립공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알려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고장의 국립공원중 소금강산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선정하여 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합니다. 국립공원은 산, 바다, 사적지로 나눌 수 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 몇 개의 공원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20곳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산악형 국립공원, 해상형 국립공원,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악형 국립공원은 지리산,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등등 전국 15곳입니다. 해상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반도, 한려해상 이렇게 4곳입니다. 그리고 사적형으로는 유일하게 경주가 있습니다. 어느 한곳 유명하지 않은 곳이 없어 많이들 다녀오셨겠지만 오늘은 경주의 어느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다른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8개 지구로 나눠져 경주시가지를 에워싸듯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남산 또 토함산지구 맞습니다. 그다음은 정말 모르시겠죠.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남산지구, 토함산지구, 용담정이 있는 구미산

문화재 소개		지구,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서악지구,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 화랑지구, 신선사 마애불상군이 있는 단석산지구, 문무대왕릉이 있는 동해의 대본지구, 그리고 바로 소금강산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소금강산지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평소 살고 있는 곳이지만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있는 문화재에 관련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소금강산	소금강산은 높이가 178m되는 작은 산이지만 왕경에서 볼 때 북쪽에 있어 북산, 북악으로 지칭하다가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 되면서 불교의성역이 되었습니다. 금강산하면 북한에 있는 산이 생각 나실텐데요. 이곳 경주에도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금강산보다 작은 금강산이란 뜻으로 이곳을 소금강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굴불사지	굴불사지는 보물 제 121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습니다. 금강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백률사를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쳐 가야되는 곳이죠. 항상 많은 참배자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제35대 경덕왕께서 이곳을 지나갈 때 땅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임금께서 땅을 파보게 하니 그곳에서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큰 바위가 나와 절을 짓게 하고 이름을 ‘굴불사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는 뜻으로 ‘굴불사지’라고 합니다. 사방에 부처님이 새겨진 것은 온 누리에 화려한 부처님 세계가 열려 있다는 뜻으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에 부처님이 계시는지 찾아 볼까요? 서쪽 면에는 아미타여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극락세계를 관장 하시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정성 드려 기도를 올린다면 죽어서 좋은 세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소개		부처님께서 어여쁘게 봐 주신다면 참 좋겠죠. 동쪽 면에는 약사여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손에 약합을 들고 계셔서 아픈 사람의 병을 언제든지 고쳐 주신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부처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만 보이시고 한분은 안 보이실텐데요. 제가 손을 움직여 볼테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렴풋이 보이시는지요. 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평소 잘 보이지 않아서 바위가 물을 먹는 날 그러니까 비가 온 뒷날 오시면 보실 수 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오셔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은 관세음보살 이신데 항상 중생의 소원을 들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남쪽 면에도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존명은 정확히 알 수 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은 얼굴 전체가 사라지고 없는데 과연 누가 떼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부처님께서 혼내 주실 것 같죠.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기로는 정성 드려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많다고 소문이나 아직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률사	굴불사지에서 조금 올라오니 백률사가 나왔죠. 원래의 규모도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대웅전, 마애 탑, 종각, 요사채, 산신각이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건물이 대웅전인데요.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실 때 건물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전 앞에는 보편적으로 탑이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으시죠. 마당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정면에 있는 큰 바위에다 탑을 새겨 형식을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시면 종각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전에 사용 했던 받침돌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보이시죠. 석등대석, 불상대석, 주춧돌 여러 형태가 남아 있네요. 아직도 방치된 유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네요.

문화재소개		백률사에 있었던 유물 중에 두 가지는 현재 박물관에 옮겨 전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려 드릴께요. 첫째, 이차돈 순교비라는 것인데요. 이차돈은 법흥왕 때의 사람인데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목숨을 받친 분이십니다. 법흥왕께서 백성이 화합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신라귀족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차돈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돕고자 자기를 희생하여 사형을 당하며 '내가 죽으면 큰 이변이 일어날 것이오' 라는 말을 남기도 죽습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피는 흰 우유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치솟고 잘린 머리는 멀리 날아갔는데 금강산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반대하든 귀족들은 너무 놀라 감히 불교 수용을 반대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크게 뉘우치고 불교를 받아드려 널리 전파하는 계기기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석에다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백률사 금동 약사여래불입상(국보 제28호)입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최대의 금동불상인데 사람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고 우아한 용모를 갖고 계신 불상으로 신라인들의 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재소개	**마애삼존불**	자! 힘내서 산으로 올라 가 보도록 할께요. 깨끗한 마당처럼 빗자루 질이 참 잘 되어 있죠. 누군가가 항상 청소를 해 주신답니다. 큰 바위 면에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시고 계시죠. 오랜 세월 탓에 조각이 많이 손상되어 평소 윤각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지만 이곳 또한 비온 뒷날 오시면 잘 보이는 곳입니다.

문화재소개		이곳을 금강산 마애삼존불 (경북 유형문화재 제19호)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을 바위에다 새겨 놓은 것을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세분의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고 세분의 부처님이 계신다고해서 마애삼존불이라고 합니다.
	석탈해왕릉과숭신전	이곳은 신라 제4대왕의 무덤인 석탈해왕릉입니다. 신라의 왕은 모두 56분 계셨는데 그 중 석씨왕은 8분이셨는데 현재 남아있는 왕릉은 안타깝게도 이곳밖에 없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용맹하고 지혜로워 신라 두 번째 왕이 사위를 삼은 분입니다. 신라 제2대 남해왕 때 동해 바닷가 '아진포' 라는 곳에서 임금님께 고기를 잡아 받치던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까치들이 떼 지어 날며 울고 있어 이상히 여기고 나가 살펴보니 큰 궤짝이 실린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궤짝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단정하고 잘 생긴 한 아이와 여러 가지 보물 그리고 노비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7일 뒤에 스스로 이야기 하는데 '나는 용성국의 왕비에게서 알로 태어나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곳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님을 알고 거두어 길렀는데 자라면서 총명하고 영특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석탈해의 소문이 남해왕에게까지 전해져 공주의 베필로 삼아 사위 자격으로 그 후에 신라의 4번째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릉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숭신전이라고 합니다. 신라를 다스린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세 성씨의 시조왕을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은 석씨의 첫 번째 왕이된 석탈해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물입니다.
	표암	표암재와 박 바위 입니다. 서라벌의 여섯 촌락 중에 양산촌의 촌장이 경주이씨 알평공이고 또 알평공이 태어난 곳이 표암입니다.

		설화를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 바위에 박을 심었는데 아주 단단한 박이 열렸다고 합니다. 박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경주 이씨 시조 알평공입니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박 바위라 불렀다고 전하고 있고 경주이씨 후손들이 건물을 만들어 이곳에다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금강산을 둘러 보셨는데 평소 궁금증이 다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 국립공원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립공원의 자연 환경안내원 000였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야생화	노랑무늬붓꽃	 4~5월에 꽃이 피는 이 꽃은 여러해살이풀에 속하고 높은 산에서 자랍니다. 칼 모양의 잎은 2줄로 안으며 어긋나고 잎은 넓고 큰 편입니다. 꽃의 지름은 3~4ｃｍ이고, 회피의 가운데에 흰색바탕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꽃이 핍니다. 흰색과 노란색의 경계는 등황색(귤색)나타나고 있습니다. 꽃잎 가운데 노란색 무늬가 있어서 노랑무늬란 이름이 붙여졌고 붓꽃이란 꽃봉오리 모양이 붓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예요. 꽃말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멸종위기식물2급이니 여러분께서 보존과 보호할 대상이겠죠?

	복수초	 2~5월 피는 이꽃은 복과 장수를 가져주는 꽃이라 해서 복수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언 땅을 송곳처럼 새순을 세우며 뚫고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눈을 삭이며 핀다고 하여 “눈색이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눈속을 뚫고 핀다기보다 꽃이 핀 다음에 눈이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노루귀	 산지 숲속에서 자라며 3~4월에 꽃이 피는 여러해살 이풀입니다.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피며 꽃잎으로 보이는 꽃받침잎이 6~8개가 납니다. 꽃이 질 때 쯤 뿌리에서 잎이 피어나며 꽃줄기와 잎자루와 잎 뒷면에 흰솜털이 많이 나는데 잎을 보면 꼭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노루의 귀와 그 모양이 흡사하여 노루귀라는 정겨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잎 앞면에 무늬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늬가 나타나기도합니다.
	제비꽃	 산과 들 양지바른 풀밭에서 자라며 4~5월에 꽃피는 여러해살이 풀이고 뿌리에서 난 잎이 비스듬히 퍼져 자랍니다. 긴꽃줄기 끝에 비교적 짙은 자주색꽃이 피는데요. 꽃줄기에 며느리발톱으로 불리는 부속체가 있습니다. 아래쪽 꽃잎안쪽에는 흰색바탕에 자주색줄무늬가 있고 열매는 익으며 3갈래로 갈라지면서 씨를 드러냅니다. 남쪽에서 제비가 올 때 쯤 꽃이 피고 꽃 모양이 제비날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오랑캐꽃’, ‘씨름꽃’, ‘반지꽃’ 등의 여러 가지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비꽃이 필 즈음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용악 시인의 ‘오랑캐꽃’이라는 시에 나와 있듯이 꽃 뒤쪽의 꿀주머니가 오랑캐의 뒷머리를 닮아서 그렇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비꽃 종류는 수십가지가 되는데다가 종간의 구별이 쉽지 않거나 특이한 모양을 한 것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의 신(神), 아폴로는 이아라는 아름다운 소녀와 양치기 소년 아치스의 사랑을 매우 질투하여 이아를 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바로 이 꽃이 제비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쥬피터 신이 아름다운 소녀인 이아를 은근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쥬피터의 아내는 몹시 분개하여 이아를 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아를 가엾게 여긴 쥬피터의 아내는 소가 먹을 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꽃이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비꽃을 그리스말

		로 이오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용악 시인의 오랑캐꽃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띳집도 버리고 강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러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께 울어 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며느리밑씻개	 길가나 빈터의 습한 곳에서 덩굴져 자라며 7~8월에 피는데 줄기아래를 향해 달린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많이 있어서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어요. 잎은 삼각 모양이고 잎자루가 잎 뒷면에 붙는 며느리배꼽과 달리 며느리 밑씻개는 잎의 밑변 쪽에 붙습니다. 연분홍색 꽃이 피고, 열매는 둥글고 끝이 뽀족하며 대체로 검게 익는 점 또한 며느리밑씻개와 다릅니다.
	산괴불주머니	 산과 들에 습기가 있는곳 자라며4~6월에 월에 꽃을 피웁니다. 줄기는 30~50ｃｍ로 곧게 서서 자라다 잎은 어긋나고 2회 깃꼴겹잎으로 갈라집니다. 작은잎은 다시 깃꼴로 잘게 잘라지고, 잎의 변화가 다양한 편입니다. 열매는 씨부분이 염주처럼 볼록 튀어 나와 있고, 입술모양의 노란 꽃이 촘촘히 모여서 피는데, 뒷부분은 꿀주머니로 되어 있어서 맛을 보면 약한 꿀맛이 납니다. 괴불주머니라는 뜻이 복주머니를 상징하는 노리개의 우리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리개를 닮아 괴불주머니라고 하고 산에서 피기 때문에 산괴불주머니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피나물	산의 숲속에서 자라며 4~5월에 꽃이피는 이 피는데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피 같은 액이 나온다하여 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는 밝은 주황색 액이 나옵니다. 뿌리에서 곧바로 꽃줄기가 나오는 매미꽃과 달리 피나물은 잎

		 겨드랑이에 꽃이 달리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애기똥풀	 들과 숲 가장자리에 흔히 자라며 5~10월까지 꽃이 피는데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아기의 똥처럼 노란액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다랗게 매달리는 열매가 익으면 검고 윤기있는 씨가 나타납니다. 대개는 양귀비과 식물은 유독성식물으므로 애기똥풀 역시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에 털이 많아서 만져보면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고 어릴적에는 털이 더 많다가 점차 없어지면서 잎이 갈라지기 때문에 다른 식물처럼 보이기도합니다. 꽃이 없을 적에는 잎의 끝을 살짝 따봐서 노란액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애기똥풀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봉선	 봉선화와 모양이 비슷하고 물가에 핀다고 해서 물봉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것같은....노래가사처럼 손을 살짝 대기만해도 열매가 터져 씨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 졌는데 물봉선은 꽃잎에 독이 있으니 손톱에 물을 들이진 못한답니다.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진달래와 철쭉	진달래와 철쭉은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봄꽃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꽃이지만 진달래와 철쭉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진달래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 끝이 5갈래정도 갈라지고 꽃잎이 보라색 점이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깔대기모양의 꽃이 자주색 또는 연한 붉은 색으로 핍니다. 철쭉은 잎과 꽃이 동시에 피고 꼿잎이 두껍고 주걱모양의 잎이 가지끝에서 5장씩 모여 나구요. 진득한 액이 묻어나는데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없는 개꽃이랍니다. 2~3개 꽃이 모여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진달래보다 큽니다.

			
	동자꽃		7~8월에 주황색의 꽃이 하트모양으로 커다랗게 피고, 겨울철 산속암자에서 스님 기다리던 동자승이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얼어죽은 자리에서 피어났다고 하여 동자꽃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꽃말은 정열, 기다림입니다. 꽃말에서도 동자승의 맘이 느껴지지요~